

# 광주·전남, 교통정체·사고 속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내린 눈이 얼며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교통 정체·사고,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광주와 담양·곡성·장성·화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새벽에는 나주·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흑산면제외)·진도에 대설예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광주 4.6cm, 곡성 2.7cm, 화순 2.5cm, 장성 2.2cm, 담양 1.5cm, 함평 1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이날 아침 기온은 진도 영하 2.7도, 순천 영하 2.4도, 광주 영하 1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을 보였다.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광주지역은 일부 도심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광주경찰청 112 상황실과 시소방본부 119 상황실에는 새벽부터 수십 건의 교차로 정체 및 빙판길 차량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광주에서 무안 남악으로 출발하는 출근 버스의 운행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 도로에는 잇따라 차량 사고로 도로 자체가 1시간 넘게 주차장으로 변했다.

남구 봉선동 용산터널 주변 도로와 2순환도로 무진대로(광주여대~광주경찰청 사이) 곳곳에서도 심각한 정체 현상이 벌어졌다.

광주청 112 상황실 관계자는 "새벽부터 수십 건의 신고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밤 사이 내린 비와 눈 때문에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빙판길이 예상되는 지역에 열화칼슘을 뿌리거나 제설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와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9시11분께 영광군 영광읍 한 예식장 앞 도로에서 승용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충격했다.

오전 8시56분께 영광군 백수읍과 군서면에서 승용차량 2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배수로에 빠지거나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오전 6시35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에서 승용차 단독사고로 운전자 정모(46)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진에서는 이날 오전 4시45분께 성진면 13번 국도 편도 2차선)를 주행하던 A(26)씨의 소용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 대설주의보로 항공기 5대 결항도

### 기상청, 내일까지 최대 15cm 눈 예보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22·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빙판길 폭신도로에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5분 제주에서 광주로 떠날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TW902편의 결항을 시작으로 제주 기점 광주행 출발 5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광주공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전 8시20분부터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낙상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9명 중 6명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남에서는 오전 2시 40분께 나주 모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미끄러지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눈은 이날 낮 시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돼 오는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동부남해안 제외) 5~10cm다. 서해안 지역은 15cm 이상 오는 곳도 있었다.

흑산도·홍도에는 강풍경보가, 거문도·초도·무안·진도·신안(흑산면 제외)·목포·영광·함평·완도·해남·여수·고흥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11일까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비라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남규 기자



남북고위급 회담서 이산가족 상봉제안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정부가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화상상봉장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기원하는 희망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 무등산국립공원 산악구조 1년 새 26% 증가

### 지난해 산악구조활동 분석...339명 인명구조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9일 지난해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악구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등산국립공원 산악구조 통계 분석 결과 119산악구조대가 310건 출동해 총 339명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대비 구조처리 건수는 64건(20%), 구조인원은 14명(15%) 증가한 것이다.

월별로는 10월이 67건(21.6%)으로 가장 많았고 5월 40건(13%), 1월 37건(12%) 등의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체 산악구조처리의 62%(193건)가 집중됐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1시~4시가 169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6시~12시 98건(32%), 기타 시간대 43건(14%) 등의 순이었다. 오후 1시 이후 하산 시간대에 순간의 방심과 체력 저하로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인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219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55명(18%), 40대 35명(11%), 30대 30명(9.6%) 순이었다. 장소는 장물재가 119건(39%), 토

끼등 35건(11%) 등이었다.

임근술 119특수구조대장은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탐방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 지판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면 된다"며 "겨울철 기습 한파나 폭설이 내린 경우에는 가능한 입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제자 처벌·추행’ 중학교 교사 검찰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때린 혐의(강제추행·폭행)로 지역 모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수업 도중 또는 쉬는 시간에 20여차례에 걸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을 때리고 여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학생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었으며,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성희롱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훈육 차원의 폭행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진수조사를 벌인 결과 1학년 학생 16명이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40대 자재 충격 사망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건설자재에 맞아 숨졌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A(48)씨가 19급 지반 다짐용 건설자재(콘크리트 말뚝·길이 9m·지름 50cm)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굴착기 운전기사 B(57)씨가 굴러준 건설자재를 받침목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공사장 관리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전남경찰 출퇴근 전세버스 정류장 덮쳐

전남경찰청 직원들을 실어 나르는 출퇴근 전세버스가 정류장을 덮쳐 70대 노인이 다쳤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28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령고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을 A(67)씨가 운전하는 전남경찰청 출퇴근 전세버스가 덮쳤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서 있던 B(78·여)씨가 팔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가 인도까지 들이닥쳤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평소 당뇨를 앓고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처음 본 남성 흉기 살해 협박 50대 검거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음 본 남성을 뒤따라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A(55)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에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길가에서 처음 본 B(44)씨를 따라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성이 흉기로 협박하며 '질러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카페서 40대女 흉기살해 범인 "안 만나줘서"

서울 한복판 카페에서 여성을 흉기 살해한 '황신동 카페 살인'의 피의자가 9일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이유를 따지다가 감정이 격해져 살해했다"고 말했다.

서울 해방경찰서는 앞서 5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모(47)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씨는 4일 오후 5시18분께 종로구 황신동 소재 커피숍 안에서 미리 준 비례한 흉기로 지인 A(49·여)씨의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가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